

2015. 6. 13. 서울시 9급[국어]

배미진 교수
월비스고시학원
www.baemijin.com

총평

안녕하세요. 월비스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배미진입니다.

5월 말, 뜻하지 않게 ‘메르스’라는 바이러스로 나라 전체가 들썩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두려움에도 노력하신 결실을 거두고자 끝까지 시험장에 가서서 최선을 다한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우선 문법 문제는 대체로 쉬운 편이었습니다.

‘표준어, 띄어쓰기, 맞춤법, 음운의 변동, 외래어 표기’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여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학생들이라면 무난히 맞혔을 것입니다. ‘날말의 짜임’ 문제가 약간 어려운 학생들이 있었을 것이나 그것 역시 난이도 ‘상’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독해는 매우 쉽게 나와 독해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쉬웠던 이전 서울시 시험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한자 문제는 7급보다 오히려 서울시 9급에서 한 문제 더 나왔습니다만, 한자성어를 꾸준히 익혀 왔던 학생들에게는 쉬운 한자성어가 나와 두 문제를 무난히 맞혔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자어 한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럼, 늘 서울시 시험의 관건이었던 문학 문제는 어땠을까요? 문제가 공개되고 올해까지 문학 문제가 3~5 문제 사이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공개가 된 이후에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은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들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울시의 위상에 걸맞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이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맞이하는 문제입니다. 한 문제가 정말 중요한 시험이긴 하지만, 다음에 이 문제가 다시 나올지도 몰라서 이런 문제를 다 외우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9급에 서울시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은 벌써 두 번째 같은 문제 유형의 출제이니 중요 작품 위주로 봐 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전 문학은 한 번이라도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쉽게 풀었을 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고전 문학만큼은 꼭 공부하고 시험에 가지길 바랍니다.

예전에 총평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문법과 고전문학은 우리 일상생활과 비교했을 때 ‘보험’과 같습니다. 최소한의 방어책인 것이지요. 알면 맞히고 모르면 틀리는 것이 문법과 고전 문학입니다.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주 뒤에 지방직 9급 시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어지러운 상황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시험장으로 발걸음을 옮긴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영역	2015년도		영역	2014년도	
	문항 수	출제 영역		문항 수	출제 영역
문법	1	맞춤법 통일안	문법	1	형태론(품사)
	1	표준어		1	문장의 종류
	1	합성어 파생어의 구별		1	한글 맞춤법 통일안
	1	음운의 변동 (축약)		1	사이시옷
	1	띄어쓰기		1	띄어쓰기
	1	외래어 표기		1	외래어 표기
	1	고전 문법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1	중의적 문장
	1	국어의 특질		1	올바른 문장 쓰기
한자	1	한자어		1	의미 변화의 유형
	2	한자성어		1	표준어
어휘	1	다의어 찾기	한자	3	어휘
	1	관용구의 의미 파악		1	한자어
	1	고유어 부사의 의미 파악		1	한자성어
독해	1	글의 전개 방식	독해	1	문장 추론
	1	전개 순서 배열			
	1	글의 논리적 구조 파악			
문학	1	고전문학 (시조 ‘이개’)	문학	1	고전문학사
	1	현대문학사 (서울을 배경으로 한 소설 찾기)		1	현대문학사
	1	현대시 (박목월 ‘이별가’)		1	현대시
				1	수사법

2015. 6. 13. 서울시 9급

1.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 ① 철수는 우리 반에서 키가 열둘째이다.
- ② 요즘 재산을 털어먹는 사람이 많다.
- ③ 나는 집에 사흘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 ④ 솟병아리가 내게로 다가왔다.

정답 ③ <2015 알찬국어 1권 117쪽>

★정답풀이

‘머루트다’ 와 ‘머물다’ 는 복수 표준어이므로 ‘머무름’ 도 ‘머물’ 도 둘 다 맞는 표기다.

★오답풀이

① 열둘째 (ㄹ) → 열두째 (ㄷ) <2015 5월 모의고사 16회 1번>, <2015 알찬국어 1권 273쪽>

◆ 순서가 열두 번째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열두째’ 가 맞다. ‘열둘째’ 는 모두 열두 개째가 됨을 뜻한다.

■ 열두째: 「수사」 순서가 열두 번째가 되는 차례. 또는 그런 차례의.

예 이 줄 열두째에 앉은 애가 내 친구 순이야.

「관형사」 순서가 열두 번째가 되는 차례의.

예 그 쪽의 열두째 줄을 읽어 보아라.

■ 열둘째: 「명사」 맨 앞에서부터 세어 모두 열두 개째가 됨을 이르는 말.

예 이 채점 답안지는 열둘째이다.

② 털어먹는 (ㄹ) → 털어먹는 (ㄷ) <2015 알찬국어 1권 272쪽>

◆ ‘재산을 함부로 써서 몽땅 없애다’ 는 ‘털어먹다’ 이다.

■ 털어먹다: 재산이나 돈을 함부로 써서 몽땅 없애다.

예 그는 도박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몽땅 털어먹었다.

④ 솟병아리 (ㄹ) → 수평아리 (ㄷ) <2015 알찬국어 1권 274쪽>

■ 표준어 규정 제7항

수평, 수나사, 수놈, 수사돈, 수소, 수은행나무

다만 1.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 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기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
암강아지, 암개, 암컷, 암기와, 암탉, 암탕나귀, 암톨쩌귀, 암돼지, 암평아리

다만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솟-’ 으로 한다.

솟양, 솟염소, 솟쥐

1. 밑줄 친 표기를 바르게 고친 것이다.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은? <2015 5월 모의고사 16회 1번>

- ① 그 애는 조금만 치켜올리면 기고만장해진다. → 주어주면
- ② 이 가족이 얼마나 질긴가 한번 시험해 보자. → 한번
- ③ 45쪽의 열두째 줄을 읽어 보아라. → 열둘째
- ④ 나는 그의 애달픈 사연을 들었다. → 애달픈

정답 ③

★정답풀이

③ ‘열두째’ 가 맞으므로 ‘열둘째’ 로 고칠 필요가 없다.

■ 열두째: 「수사」 순서가 열두 번째가 되는 차례. 예 이 줄 열두째에 앉은 애가 내 친구 순이야.

「관려사」 순서가 열두 번째가 그런 차례의. ㉠ 그 쪽의 열두째 줄을 읽어 보아라.

■ 열두째: 「명사」 맨 앞에서부터 세어 모두 열두 개째가 됨을 이르는 말.

㉠ 이 채점 답안지는 열두째이다. = 열두 개째이다.

2.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한자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언가를 상실해버린 느낌을 지니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내가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물을 때가 종종 있지요. 게다가 시골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 눈엔 참 이상했어요. 마당에다 애써서 기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도 이상했고, 겨울을 잘 넘기고 해동이 될 때면 마을에 상여가 나가는 일이 많은 것도 이상해서 계속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 ① 상실: 喪失
- ② 성장: 盛裝
- ③ 이상: 異狀
- ④ 해동: 解冬

정답 ① 喪失 (2015 알찬국어 기본서 3권 131쪽)

★정답풀이

■ 상실(喪失): 「1」 어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게 됨. 「2」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

★오답풀이

② 盛裝 (ㄱ) → 成長 (0)

: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을 뜻하는 한자어는 ‘성장(成長)’이다.

■ 성장(成長): 「1」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2」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

「3」 『생물』 생물체의 크기·무게·부피가 증가하는 일. 발육(發育)과는 구별되며, 형태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증량(增量)을 이른다.

■ 성장(盛裝): 잘 차려입음. 또는 그런 차림. ≒성식(盛飾).

③ 문맥에는 ‘異常’이 맞다.

■ 이상하다(異常--)[이: ---]「형용사」

「1」 정상적인 상태와 다르다. ㉠ 오늘따라 기계 소리가 이상하다.

「2」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식과는 달리 별나거나 색다르다. ㉡ 지금까지 들어 보지 못한 아주 이상한 새소리

「3」 의심스럽거나 알 수 없는 데가 있다. ㉢ 이상한 생각이 들다/바람 소리가 이상해서 그녀는 다시 밖에 귀를 기울였다.

■ 이상(異狀): 평소와는 다른 상태. ≒별상02(別狀).

㉠ “근부 중 이상 부!” 라고 외치는 군인들의 모습이 늑름하다.

④ 문맥에는 ‘해동(解東)’이 맞다.

■ 해동(解東) 05 [해: -]: 얼었던 것이 녹아서 풀림. 또는 그렇게 하게 함.

■ 해동(解冬) 04 [해: -]「명사」『불교』 동안거(冬安居)의 끝. 선원에서는 정월 보름날에 끝난다.

3. 다음 중 <보기>와 같은 서술 방식이 쓰인 문장은?

<보기>

포장한 지 너무 오래되어 길에는 흙먼지가 일고 돌이 여기저기 굴러 있었다. 길 양쪽에 다 쓰러져가는 집들, 날품

팔이 일꾼들이 찾아가는 장국밥집, 녹슨 함석지붕이 찌그러져 있었고, 흙먼지가 쌓인 책방, 조선기와를 올린 비틀어진 이층집, 복덕방 포장이 찢겨어 너풀거린다.

- ① 탈피 후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먹이를 먹고 자리를 떠났다.
- ② 앞은 어둡나게 붙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면서 위의 줄기를 감싼다.
- ③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글을 잘 짓는 것과 같다.
- ④ 성장이 둔화되어 일자리가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답 ②

★정답풀이 <보기>와 ①번 모두 ‘묘사’의 방식이 쓰였다.

4. 다음 문장들을 미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맥상 전개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ㄱ. 숨 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고, 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ㄴ. 현대인들은 과학 기술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의 혜택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ㄷ.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도처에서 높아지고 있어서, 핵전쟁이라도 터진다면 인류의 생존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ㄹ. 이런 위기들이 현대 과학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ㅁ.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는 심각한 현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① ㄱ-ㄷ-ㄹ-ㄴ-ㅁ
- ② ㄴ-ㄷ-ㄹ-ㄱ-ㅁ
- ③ ㄴ-ㄹ-ㄱ-ㄷ-ㄴ
- ④ ㄹ-ㄷ-ㄱ-ㄴ-ㅁ

정답 ③

★정답풀이

미괄식(尾括式): 문단이나 글의 끝 부분에 중심 내용이 오는 산문 구성 방식.

ㄴ. 현대인들은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ㅁ.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는 심각한 현상들
 ㄱ. 심각한 현상들의 예: 공기와 물의 오염, 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
 ㄷ.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
 ㄹ.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5. 다음 중 표준어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덩쿨 - 눈두덩이 - 놀이감
- ② 윗어른 - 호루라기 - 탄지
- ③ 계면쩍다 - 지리하다 - 빠지다
- ④ 주책 - 두루뭇술하다 - 허드레

정답 ④

덩쿨/명굴 <2015 알찬국어 1권 292, 293쪽>, <2015 9급 모의고사 2회 3번>, <2015 5월 모의고사 16회 4번>

웃어른 <2015 알찬국어 1권 304쪽>, <2015 3월 모의고사 4회 6번, 13회 2번>

지루하다 <2015 알찬국어 1권 277쪽>, <2015 9급 모의고사 12회 17번>

빠지다 <2015 9급 모의고사 3회 10번>

주책 <2015 알찬국어 1권 277쪽>, <2015 9급 모의고사 23회 11번>

두루뭇술하다/두리뭇살하다 <2015 알찬국어 1권 300쪽>, <2015 9급 모의고사 15회 12번>

★정답풀이

‘주책, 두루뭇술하다, 허드레’는 옳은 표기이다.

참고, ‘놀이감, 탄지, 빠지다’는 2014년에 새로 등재된 표준어이다.

★오답풀이

① 덩쿨 (x) → 명굴, 명굴 (o), 놀이감 (x) → 놀잇감 (o)

② 윗어른 (x) → 웃어른 (o)

③ 지리하다 (x) → 지루하다 (o)

4. 복수 표준어가 없는 예제가 있는 것은? <2015 5월 모의고사 16회 4번>

- ① 덩쿨, 불우물, 아래위, 땃돌
- ② 생강, 부침개질, 밀층, 귀통머리
- ③ 땃돌, 땃감당, 탄전, 거슴츠레하다
- ④ 쪽, 척, 차차, 선머슴

정답 ④

‘선머슴’은 단수표준어이다.

6.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단어는?

<보기> 접미사는 품사를 바꾸거나 자동사를 타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 ① 보기
- ② 낮설
- ③ 낮추다
- ④ 꽃답다

정답 ②

★정답풀이

‘낮설다’는 합성어이다. 나머지는 파생어이다.

<보기>는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보기>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단어는 합성어를 찾으려 된다. 선택지의 ‘낮설’은 파생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낮설다’의 활용형이다. ‘낮설다’는 명사 ‘낮’과 동사 ‘설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의 예이다. ‘낮설다’에서 파생된 명사는 없다.

낮	설다	⇒ 합성어	낮설다	'낮설다'에서 파생된 명사는 없음.
명사	형용사		형용사	
어근	어근			

■ 용언의 명사형과 파생 명사의 구별

용언(동사, 형용사) 기본형: 용언의 명사형	파생 명사	용언(동사, 형용사) 기본형: 용언의 명사형	파생 명사
놀다: 놀았음, 놀, 놀기	놀음, 놀이	보다: 보았음, 봄, 보기	보기
울다: 울었음, 울, 울기	울음	자다: 잤음, 잠, 자기	잠
얼다: 얼었음, 얼, 얼기	얼음	먹다: 먹었음, 먹음, 먹기	먹이
줄다: 줄았음, 줄, 줄기	줄음	굽다: 구웠음, 구움, 굽기 [번(爚)]	구이
알다: 알았음, 알, 알기	알음, 알	달리다: 달렸음, 달림, 달리기	달리기
살다: 살았음, 살, 살기	살	죽다: 죽었음, 죽음, 죽기	죽음, 주검
풀다: 풀었음, 풀, 풀기	풀이	기쁘다: 기뻐움, 기쁨, 기쁘기	기쁨
별다: 별었음, 별, 별기	별이	슬프다: 슬펐음, 슬픔, 슬프기	슬픔
그을다: 그을었음, 그을, 그을기	그을음	아프다: 아팠음, 아픔, 아프기	아픔
기울다: 기울었음, 기울, 기울기	기울기	만나다: 만났음, 만남, 만나기	만남
끼어들다: 끼어들었음, 끼어들, 끼어들기	끼어들기	서럽다: 서러웠음, 서러움, 서럽기	서러움
민다: 민었음, 민음, 민기	민음	설다: 설었음, 설음, 설기	설음
넓다: 넓었음, 넓음, 넓기	넓이	더럽다: 더러웠음, 더러움, 더럽기	더러움
높다: 높았음, 높음, 높이	높이	부끄럽다: 부끄러웠음, 부끄러움, 부끄럽기	부끄러움

■ 용언에서 파생명사가 없는 경우

용언(동사, 형용사) 기본형: 용언의 명사형	파생 명사가 없음	용언(동사, 형용사) 기본형: 용언의 명사형	파생 명사가 없음
팔다: 팔았음, 팔, 팔기	없음	나쁘다: 나빴음, 나쁨, 나쁘기	없음
날다: 날았음, 날, 날기	없음	고프다: 고팠음, 고픔, 고프기	없음
열다: 열었음, 열, 열기	없음	만들다: 만들었음, 만들, 만들기	없음
줄다: 줄었음, 줄, 줄기	없음	베풀다: 베풀었음, 베풀, 베풀기	없음
흔들다: 흔들었음, 흔들, 흔들기	없음	매달다: 매달았음, 매달, 매달기	없음

★오답풀이

① ‘보기’는 용언의 명사형일 수도 있고, 용언에서 파생된 명사 ‘보기’일 수도 있다. 파생 명사 ‘보기’의 경우가 있으므로 ‘보기’는 위 <보기> 설명에 해당되는 예제로 볼 수 있다.

■ 보기: 「명사」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내세워 보이는 대표적인 것.

예 김 교수는 보기를 들어서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보-(다)	-기	⇒ 파생어	보기
동사			명사
어근	명사 접미사		

③ 낮추다

낮-(다)	-추-	⇒ 파생어	낮추다
형용사			
어근	사동 접미사		사동사

④ 꽃답다

꽃	-답다	⇒ 파생어	꽃답다
명사			
어근	접미사		형용사

7. 국어의 음운 현상에는 아래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보기>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현상의 유형을 순서대로 고르면?

- ㉠ XAY → XBY(대치)
 ㉡ XAY → X□Y(탈락)
 ㉢ X□Y → XAY(첨가)
 ㉣ XABY → XCY(축약)

<보기>	술+하고	→	[하교]	→	[소타교]
		(가)		(나)	

-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②

★정답풀이

- (가) ‘술’의 ‘ㅌ’음이 ‘ㄷ’음으로 바뀜: ㉠ XAY → XBY(대치)
 (나) ‘ㄷ’음과 ‘ㅎ’이 ‘ㅌ’음으로 축약: ㉣ XABY → XCY(축약)

8.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차라리 얼어서 죽을망정 것볼은 아니 쪼겠다.
 ② 마음에 걱정이 있을 지라도 내색하지 마라.
 ③ 그녀는 얼굴이 예쁜대신 마음씨는 고약하다.
 ④ 그 사람이 친구들 말을 들을 지 모르겠다.

정답 ①

-큰망정 <2015 알찬국어 1권 95쪽>, <2015 3월 모의고사 11회 13번, 5회 5번>, <2015 5월 모의고사 11회 4번>

-큰지 <2015 알찬국어 1권 90쪽>, <2015 3월 모의고사 5회 4번, 7번, 6회 4번>, <2015 5월 모의고사 1회 2번, 7회 12번, 12회 13번, 13회 4번, 17회 9번>

★정답풀이

■ -(으)리망정: 「어미」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고 뒤 절에 그와 대립되는 다른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앞 절의 사실은 가상의 것일 수도 있다. ‘비록 그러하지만 그러나’ 혹은 ‘비록 그러하다 하여도 그러나’ 에 가까운 뜻을 나타낸다.

예 머리는 나뭇망정 손은 부지런하다./시험에 떨어질망정 남의 것을 베끼지는 않겠다.

★오답풀이

② 있을/지라도 (X) → 있을지라도 (O)

■ -(으)리지라도: 「어미」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구애받지 않는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하여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의 뜻을 나타낸다.

예 경기에 질지라도 정당하게 싸워야 한다./그는 힘을 약할지라도 기술이 좋다.

③ 예쁜대신 (X) → 예쁜대신 (O)

■ 대신: 「명사」 「1」 ((명사, 대명사 뒤에 쓰여)) 어떤 대상의 자리나 구실을 바꾸어서 새로 맡음. 또는 그렇게 새로 맡은 대상.

예 모유 대신에 우유를 먹이다/희망 대신 절망을 주다/당분간 형이 아버지 대신이다.

「2」 ((어미 ‘-은’, ‘-는’ 뒤에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와 다르거나 그와 반대임을 나타내는 말.

예 그녀는 얼굴이 예쁜 대신 마음씨는 고약하다.

④ 들을/지 (X) → 들을지 (O)

■ 지: 「의존명사」 ((어미 ‘-은’ 뒤에 쓰여)) 어떤 일이 있었든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

예 그를 만난/지도 꽤 오래되었다/집을 떠난/지 어언 3년이 지났다.

예 강아지가 집을 나간/지/사흘/만에 돌아왔다.

구별

■ -(으)리지/은지/는지/던지/(으)리지: 「어미」

「1」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예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낸다./기분이 좋은지 휘파람을 분다.

아이들이 얼마나 떠드는지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가로수 가지들이 꺾였다.

내일은 얼마나 날씨가 좋을지 오늘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빛난다.

내일은 얼마나 날씨가 추울지 바람이 굉장히 매섭게 불어./내가 몇 등일지 마음엔 걱정이 가득했다.

얼마나 졸던지 손이 곱아 떨어지지 않았다./아이가 얼마나 밥을 많이 먹던지 배탈 날까 걱정이 되었다.

동생도 놀이가 재미있었는지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았다.

「2」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뒤에 보조사 ‘요17’ 가 오기도 한다.

예 영희야, 어머님께서도 안녕하십니까?/사람들은 누구 말을 정말로 믿어야 좋은지 몰랐다.

고향에는 잘 다녀오셨는지./제 동생이 일은 잘하는지요?

내일은 날씨가 좋을지?/그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들을지 모르겠다./이 돈이 남을지 모자랄지는 썩 보아야 한다.

나도 내일은 얼마나 날씨가 추울지 모르겠어./몇 등일지가 궁금하지?

5.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2015 3월 모의고사 5회 5번>

- ① 반대할 이도 찬성할 이 만큼이나 많다.
- ② 이 꽃은 향기도 좋을 뿐더러 예쁘기까지도 하다.
- ③ 우리 나라에서 제 1회 00 대회가 열렸다.
- ④ 비록 어릴망정 그는 사리를 판단할 줄 안다.

정답 ④

9. 다음 중 국어의 ‘형태적’ 특징은?

- ①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온다.
- ②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 유사하다.

- ③ 문장 성분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④ 언어 유형 중 ‘주어-목적어-동사’의 어순을 갖는 SOV형 언어이다.

정답 ② <2015 알찬국어 기본서 19~25p>

★정답풀이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 유사하다’는 말은 동사나 형용사가 용언으로서 어미가 변화하는(활용하는) 교착어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교착어적 특성은 형태적 특성을 말하며, 나머지는 통사적 특성을 말한다.

10.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서비스 - 소시지 - 소파 - 싱크대 - 팜플렛
 ② 리더쉽 - 소세지 - 싱크대 - 서비스 - 스카우트
 ③ 쇼파 - 씽크대 - 바디로션 - 슈퍼마켓 - 스카웃
 ④ 소파 - 소시지 - 슈퍼마켓 - 보디로션 - 팸플릿

정답 ④

서비스 <2015 알찬국어 1권 260, 269쪽>

소시지 <2015 알찬국어 1권 260, 269쪽>

소파 <2015 알찬국어 1권 258, 269쪽>, <2015 9급 모의고사 7회 2번>

팸플릿 <2015 알찬국어 1권 257, 260쪽>, <2015 9급 모의고사 7회 2번, 24회 8번>, <2015 3월 모의고사 10회 13번>

리더십 <2015 알찬국어 1권 258, 266쪽>, <2015 9급 모의고사 2회 11번>, <2015 5월 모의고사 13회 6번>

슈퍼마켓 <2015 알찬국어 1권 257, 269쪽>, <2015 9급 모의고사 5회 13번, 7회 2번, 17회 18번>

★오답풀이

- ① 팜플렛 (x) → 팸플릿 (o)
 ② 리더쉽 (x) → 리더십 (o), 소세지 (x) → 소시지 (o)
 ③ 쇼파(x) → 소파 (o), 씽크대 (x) → 싱크대 (o), 바디로션 (x) → 보디로션 (o)
 슈퍼마켓 (x) → 슈퍼마켓 (o), 스카웃 (x) → 스카우트 (o)

2.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것은? <2015 9급 모의고사 7회 2번>

- ① 가톨릭, 쇼윈도, 소파, 바비큐
 ② 로봇, 내레이션, 캘린더, 카디건
 ③ 골덴 바지, 케이크, 알콜, 점퍼
 ④ 팸플릿, 슈퍼마켓, 워크숍, 플래카드

정답 ③

★정답풀이

골덴 (x) → 코르덴 (o) 또는 코듀로이 (o), 알콜 (x) → 알코올 (o)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 ㅂ, ㅅ, ㅈ, ㅊ’ 등을 가로로 나란히 써서 ‘ㄱ, ㄷ, ㅂ, ㅅ, ㅈ, ㅊ’을 만드는 것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ㅅ, ㅈ, ㅊ, ㅂ, ㅈ, ㅊ, ㅂ, ㅈ, ㅊ’ 등도 만들어 썼다.

- ① 象形
 ② 加畫
 ③ 竝書
 ④ 連書

정답 ③

★정답풀이 <기본서 577~581p>

‘병서(竝書)’에 대한 훈민정음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初聲을 合用할 것이면, 즉 竝書하라. 乃 냉終중 ㄱ 소리도 同 ㅎ니라.”
⇒ “첫소리를 어울워 뿔디면 굴바 쓰라. 乃 냉終중 ㄱ 소리도 ㅎ가지라.”

‘어울워 디면’은 ‘合用(합용)’을 풀이한 것이다. ‘다’는 ‘병서(竝書)’를 풀이한 것이며, 나란히 쓴다는 뜻이다. 초성 2자 이상을 어울려 쓸 때는 아래로 쓰지 말고, 옆으로 나란히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병서법에 의한 표기도 문자 제자 원리로는 합용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각자 병서: 같은 자음 2개를 나란히 쓴 것을 이른다. ㄱ ㄱ, ㄷ ㄷ, ㅁ ㅁ, ㅅ ㅅ, ㅈ ㅈ, ㅇㅇ, ㅎㅎ

■ 합용 병서: 다른 자음 2개나 3개를 나란히 쓴 것을 이른다.

ㄱ ㄷ, ㄴ ㄷ, ㄴ ㄹ, ㄹ ㄹ, ㄹ ㄷ, ㄹ ㄴ, ㄹ ㄹ, ㄹ ㄷ, ㄹ ㄴ, ㄹ ㄹ 등

★오답풀이

① 상형(象形)의 원리

(1) 초성(初聲) 기본자 5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

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舌音 ㄴ 象舌附上齶之形

脣音 ㅁ 象口形

齒音 ㅅ 象齒形

喉音 ㅇ 象喉形

(2) 중성(中聲) 기본자 ‘ㆍ’(아래아), ㅡ, ㅣ’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기본 요소인 삼재(三才)인 ‘天, 地, 人’을 상형하여 만들.

이 세 기본자로 하여 합용(合用)의 원리로 초출자, 재출자를 만들었다. 초출자와 재출자는 ‘ㆍ’와 ‘ㅣ’를 합하거나 ‘ㆍ’와 ‘ㅡ’를 합한 것으로 합용의 원리에 해당된다.

② 가획(加畫)의 원리 **참고** 畫(‘화’와 ‘획’으로 다 읽힌다.)

기본자에 획을 더해 가는 방식은 ‘가획의 원리’이다.

명칭	기본자(상형의 원리)	가획자	이체자
아음(牙音)	ㄱ	ㅋ	ㆁ(옛이응)
설음(舌音)	ㄴ	ㄷ, ㄸ	ㄹ(반설음)
순음(脣音)	ㅁ	ㅂ, ㅃ	
치음(齒音)	ㅅ	ㅆ, ㅈ, ㅊ	ㅌ(반치음)
후음(喉音)	ㅇ	ㆁ(여린히응), ㆁ	

④ 연서법(連書法)

“ㅇ을 連書 脣音之下하면 즉 爲 脣輕音 ㅎ느니라.”
⇒ “ㅇ을 입시를 쏘리 아래 니써쓰면 입시를 가빅야뿐 소리 ㄷ외느니라.”

■ 연서법: 순음 ‘ㅂ, ㅃ, ㅁ, ㅍ’ 아래에 ‘ㅇ’를 이어 쓴 것을 이른다. ㄷ ㅎ, ㅂ ㅎ, ㅁ ㅎ, ㅍ ㅎ

12. 다음의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보기>

그는 집에 갈 때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간다.

① 그는 남들과는 다른 비범한 재능을 타고 태어났다.

- ② 그는 가야금을 발가락으로 탈 줄 아는 재주가 있다.
- ③ 그는 어릴 적부터 남들 앞에 서면 부끄럼을 잘 떴다.
- ④ 그는 감시가 소홀한 야밤을 타서 먼 곳으로 갔다.

정답 ④ <2015. 3월 9급 모의고사 6회>

★정답풀이

<보기> “그는 집에 갈 때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간다.” (‘타다02’ [1]의 뜻)

④번의 “그는 감시가 소홀한 야밤을 타서 먼 곳으로 갔다.” (‘타다02’ [2] 「2」의 뜻)

■ 타다02 「동사」

[1] 【…에】 【…을】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얹다.

㉠ 비행기에 타다 || 배를 타다/자동차를 타다/지하철을 타다/가마를 타다/그는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다.

[2] 【…을】

「1」 도로, 줄, 산, 나무, 바위 따위를 밟고 오르거나 그것을 따라 지나가다.

㉡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탄다./바위를 타는 솜씨로 보아 저 사람은 암벽 등반가인가 보다.

「2」 어떤 조건이나 시간, 기회 등을 이용하다.

㉢ 아이들은 야밤을 타 답서를 했다./부동산 경기를 타고 건축 붐이 일어났다.

「3」 바람이나 물결, 전파 따위에 실려 퍼지다.

㉣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재판의 결과는 전파를 타고 빠르게 퍼져 나갔다./착한 일을 한 덕분에 방송을 타게 됐다.

「4」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 어떤 기구를 이용하여 달리다.

㉤ 스케이트를 처음 탈 때는 엉덩방아를 찧게 마련이다./썰매를 타려면 꼭 장갑을 끼어야 한다.

「5」 그네나 시소 따위의 놀이 기구에 몸을 싣고 앞뒤로, 위아래로 또는 원을 그리며 움직이다.

㉥ 그네를 타다/이제 구경은 그만하고 신나는 놀이 기구를 타러 가자.

「6」 의거하는 계통, 질서나 선을 밟다.

㉦ 연줄을 타다.

★오답풀이

① 그는 남들과는 다른 비범한 재능을 타고 태어났다.(‘타다04’ 「2」의 뜻)

■ 타다04 「동사」

「1」 【…에서/에게서 …을】 ((‘…에서/에게서’ 대신에 ‘…에게’ 나 ‘…으로부터’가 쓰이기도 한다)) 몹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다.

㉠ 회사에서 월급을 타다/형에게서 용돈을 타다/경연 대회에서 상을 타다/부모님에게 책값을 타서 쓰다.

「2」 【…을】 복이나 재주, 운명 따위를 선천적으로 지니다.

㉡ 복을 타다/좋은 팔자를 타고 태어나다/운명을 잘 타고 태어났는지 손대는 일마다 운수 대통이다.

② 그는 가야금을 발가락으로 탈 줄 아는 재주가 있다.(‘타다06’의 뜻)

■ 타다06 「동사」

【…을】 악기의 줄을 통기거나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다.

㉠ 가야금을 타다/풍금을 타다/그 학생은 거문고 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③ 그는 어릴 적부터 남들 앞에 서면 부끄럼을 잘 떴다.(‘타다07’ [2] 「2」의 뜻)

■ 타다07 「동사」

[1] 【(…을)] 먼지나 때 따위가 쉽게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다.

㉠ 먼지가 타다 || 이 옷은 때를 잘 탄다.

[2] [···을]

「1」 몸에 독한 기운 따위의 자극을 쉽게 받다. ㉠ 옷을 타다.

「2」 부끄럼이나 노여움 따위의 감정이나 간지럼 따위의 육체적 느낌을 쉽게 느끼다.

㉡ 노여움을 타다/간지럼을 타다/여전히 젊고 예쁘고 부끄럼 잘 타고, 시집을 잘 가서 고생을 몰라서 그런지 무슨 애가 그대로야.

「3」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쉽게 받다.

㉢ 가을을 타다/계절을 타다/햇살의 젊은 사람은 나이답지 않게 추위를 타는지 몸을 웅크린 채 바닥에 계속 발을 구르고 있었다.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바른 것은? <2015. 3월 9급 모의고사 6회>

<보기>

불에 ㉠ 타다.

버스에 ㉡ 타다.

술에 물을 ㉢ 타다.

- ① 같은 의미를 가진다. ② 사전에서 별개의 항목으로 존재한다.
③ 이음(異音)동의어(同義語)이다. ④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의 관계다.

정답 ②

13. <보기>의 홍길동 씨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한자성어는?

<보기>

홍길동 씨는 내일 열릴 동창회에 참석할 마음이 없었지만 친구들의 성화로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당일 아침 갑작스레 배탈이 나서 도저히 동창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동창회 총무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동창회에 나오기 싫은 핑계라고 생각했다.

- ① 錦上添花
② 烏飛梨落
③ 苦盡甘來
④ 一舉兩得

정답 ②

오비이락 <2015 알찬국어 기본서 3권 51, 90쪽>, <2015 3월 모의고사 6회 14번, 9회 12번>

금상첨화 <2015 알찬국어 기본서 3권 18, 97쪽>

고진감래 <2015 알찬국어 기본서 3권 14, 51쪽>

일거양득 <2015 알찬국어 기본서 3권 58, 59쪽>

★정답풀이

■ 烏飛梨落(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

★오답풀이

- ① ■ 錦上添花(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 苦盡甘來(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
④ ■ 一舉兩得(일거양득):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14. 서로 의미가 관계있는 한자성어끼리 묶은 것이다.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묶은 것은? <2015 3월 모의고사 6회 14번>

- ① 오비이락(鳥飛梨落),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 ② 권불십년(權不十年), 권상요목(勸上搖木)
- ③ 각주구검(刻舟求劍), 수주대토(守株待兔)
- ④ 화용월태(花容月態), 단순호치(丹脣皓齒)

[정답] ②

14. 다음 한자성어 중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① 道聽塗說
- ② 心心相印
- ③ 拈華微笑
- ④ 以心傳心

정답 ①

도청도설 <2015 알찬국어 기본서 3권 25쪽>, <2015 알찬한자 1권 8쪽 2권 23쪽>

심심상인 <2015 알찬국어 기본서 3권 46, 88쪽>

염화미소 <2015 알찬국어 기본서 3권 51, 88쪽>, <2015 5월 모의고사 16회 15번>

이심전심 <2015 알찬국어 기본서 3권 57, 88쪽>

★정답풀이

■ 道聽塗說(도청도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이르는 말. <논어>의 <양화편(陽貨篇)>에 나오는 말.

★오답풀이

② ■ 心心相印(심심상인): 말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전함.

③ ■ 拈華微笑(염화미소): 말로 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 석가모니가 영산회(靈山會)에서 연꽃 한 송이를 대중에게 보이자 마하가섭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 지으므로 그에게 불교의 진리를 주었다고 하는 데서 유래함. = 拈華示衆(염화시중)

④ ■ 以心傳心(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전등록>에 나오는 말로 원래는 불교의 법통을 계승할 때에 쓰임.

15. 밑줄 친 한자성어와 뜻이 가장 다른 것은? <2015 5월 모의고사 16회 15번>

환공이 당상(堂上)에 앉아 글을 읽노라니 정하(庭下)에서 수레를 짜던 늙은 목수가 톱질을 멈추고, “읽으시는 책이 무슨 책이 오히려?” 물었다.

환공 대답하기를, “옛 성인의 책이라.” 하니, “그럼 대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역시 옛날 어른들의 찌꺼기들시다그려.” 한다. 공인(工人)의 말투로 너무 무엄하여 환공이 노기를 띠고, “그게 무슨 말인가? 성인의 책을 찌꺼기라 하니 찌꺼기 된 연유를 들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살려 두지 않으리라.” 하였다. 늙은 목수 자약(自若)하여 아래와 같이 아뢰었다 한다.

“저는 목수라 치목(治木)하는 예를 들어 아뢰오리다. 톱질을 해보더라도 느리게 당기면 헛먹고 급하게 당기면 톱이 막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 너무 느리지도, 너무 급하지도 않게 당기는 데 묘리(妙理)가 있습니다만, 그건 손이 익고 마음에 통해서 저만 알고 그렇게 할 뿐이지 말로 형용해 남에게 그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옛적 어른들께서도 정말 전해 주고 싶은 것은 모두 이러해서 품은 채 죽은 줄 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옛사람의 찌꺼기쯤으로 불러 과언이 아닐까 하옵니다.”

환공이 물론 턱을 끄덕였으리라 믿거니와 설화(說話)나 문장이나 그것들이 한 묘(妙)의 경지(境地)의 것을 발표하는 기구(器具)로는 너무 무능한 것임을 요새 와 점점 절실하게 느끼는 바다. 선승(禪僧)들의 ‘不立文字說’에 더욱 일깨워짐이 있다.

- 이태준, ‘일분어(一分語)’ 중에서 -

- ① 제행무상(諸行無常)
- ② 염화미소(拈華微笑)
- ③ 교외별전(敎外別傳)
- ④ 염화시중(拈華示衆)

정답 ① 제행무상(諸行無常) 『불교』우주의 모든 사물은 늘 돌고 변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음.

15. 다음 중 <보기>의 뜻으로 옳은 것은?

<보기>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

- ① 힘든 일을 억지로 함
- ②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꼭 갚음
- ③ 모든 물건은 순리대로 가꾸고 다루어야 함
- ④ 사리를 돌보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통으로 먹으려 함

정답 ②

★정답풀이 ■ 털을 뽑아 신을 삼겠다: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꼭 갚겠다는 말.

16. 다음 제시된 단어 중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봐란듯이: 우쭐대고 자랑하듯이
- ② 가뭇없이: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게
- ③ 오롯이: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 ④ 대수로이: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게

정답 ④

★정답풀이 ■ 대수로이: 중요하게 여길 만한 정도로. ❌ 대수로이 여기지 않다./그 사건은 대수로이 생각할 일도 아닌데 웬 법석이나.

17. 다음 글의 논리적 구조로 가장 옳은 것은?

자유란 인간의 특성 중의 하나로서 한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회적인 여러 제약들, 가령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제도나 권위, 혹은 억압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거리가 확보되면 될수록 개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당하며 동시에 안정성과 소속감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새롭게 나타난 고독감이나 소외감, 무력감이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하게 된다.

- ① 원인 - 결과
- ② 보편 - 특수
- ③ 일반 - 사례
- ④ 주장 - 근거

정답 ①

★정답풀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원인] → [결과] 개인이 사회적인 여러 제약들, 가령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제도나 권위, 혹은 억압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거리가 확보되면 될수록 [원인] → [결과] 고립되고 소외당하며 동시에 안정성과 소속감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적나라하게 노출됨

고독감이나 소외감, 무력감이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원인] → [결과]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하게 된다.

18. 다음 중 서울을 주요 배경으로 한 소설이 아닌 것은?

- ① 박태원의 『천변 풍경』 <2015 알찬국어 기본서 2권 710쪽>
- ② 염상섭의 『두 파산』 <2015 9급 모의고사 1회 7번>, <2015 알찬국어 기본서 2권 695쪽>
- ③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 ④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정답 ④

★정답풀이

『당신들의 천국』은 이 작품은 군부가 정권을 잡은 5016 군사정변 후에 소록도 나환자 병원(수송소)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새로 부임해 온 의사장교 조백헌 대령이 사심 없이 이 절망의 땅 소록도를 천국 같은 땅으로 만들려고 온갖 지혜와 노력을 다 쏟았으나 결국 실패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품이 엮여져 있다.

★오답풀이

- ① 『천변 풍경』은 제목대로 서울 청계천변이라는 공간을 무대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외면 풍경을 마치 카메라로 찍듯이 묘사해나간 일종의 세태 소설이다. 남정네들이 모여드는 이발소와 여인네들이 모여드는 팔래터를 주무대로 하여 일어나는 대소사(大小事)들을 50개의 삽화와 그림마저럼 직조하였다. 주색잡기에 골몰하는 재력이 민주사나 한약방 주인, 포목점 주인, 카페 여급 하나코, 결혼했다 친정으로 쫓겨온 이쁜이, 순박한 시골색시 금순이, 그리고 만돌 어멈이나 점룡 모친, 창수나 동팔이 등의 인물들 통해 축첩口결혼口선거口직업 등 서울 중인 및 하층민 토박이들의 삶과 생활 풍속을 뛰어나게 묘사하였다.

<2015 알찬국어 기본서 2권 710쪽>

박태원 <천변 풍경>(1936)

■ 줄거리 ■

일정한 줄거리는 없다. 1년 동안 청계천변에 사는 약 70여 명의 인물들이 벌이는 일상사가 그 주된 내용이다. 민 주사, 한약국집 가족, 포목전 주인을 제외한 재봉이, 창수, 금순이, 만돌이 가족, 이쁜이 가족, 점룡이 보자(母子) 등은 모두 청계천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점룡이 어머니, 이쁜이 어머니, 귀돌 어멈을 비롯한 동네 아낙네들은 팔래터에 모여 수다를 떠다. 이발소 집의 사환인 재봉이는 이런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결코 관태를 느끼지 않는다. 민 주사는 이발소의 거울에 비친 푸글푸글 늙어 가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짓지만, 그래도 돈이 최고라는 생각에 호뭇한다. 여급 하나코의 일상, 한약국에 사는 젊은 내외의 외출, 한약국집 사환인 창수의 어제와 오늘, 약국 안에 행랑을 둔 만돌 어멈에 대한 안방마님의 꾸지람, 이쁜이의 결혼, 이쁜이를 작사랑하면서 이를 바라보기만 하는 점룡이, 신전집의 몰락, 민 주사의 노름과 정치적 야망, 민 주사의 작은집인 안성집의 외도, 포목점 주인의 매부 출세시키기, 이쁜이의 시집살이, 민 주사의 선거 패배, 창수의 희망, 금순이의 과거와 현재, 기미코와 하나코의 여급 생활, 금순이와 동생 순동이의 만남, 하나코의 시집살이와 이쁜이의 속사정, 재봉이와 젊은 이발사 김 서방의 말다툼, 친정으로 돌아오는 이쁜이, 이발사 시험을 볼 재봉이 등으로 에피소드들이 이어진다.

- ② 『두 파산』의 공간적 배경은 해방 직후 서울 황토원 부근으로 정래 어머니는 생활이 어렵자 남편을 졸라서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30만원을 대출 받고 문방구를 시작한다. 그러나 돈이 모자라게 되자 같이 동경유향중이던 김옥임에게 20만원의 돈을 빌리게 된다. 또한 교장한테도 5만원을 빌린다. 그러나 정래 어머니가 하는 문방구가 장사가 잘되자 김옥임은 정래 어머니를 질투하며 정래 어머니와 공동으로 합의한 20만원중 10만원을 빚으로 바꾸고 교장은 김옥임의 빚과 자신의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다.

<2015 알찬국어 기본서 2권 695쪽>

염상섭 <두 파산>(1949)

■ 줄거리 ■

정래 모친과 옥임은 소학교 적부터 같이 자랐고, 동경여대를 다닐 때도 함께 고생하던 친구이다. 옥임은 스물 세살쯤까지 동경에서 신여성 운동과 연애를 하면서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간다. 그 영감은 증경 도지사를 하다가 전쟁 말기에는 군수품 회사의 취체적과 감사역을 지낸다. 옥임은 별 어려움없이 호강하면서 산다. 정래 모친은 신수가 멸절한 호남자와 결혼했다. 그녀의 남편은 무슨 정당의 조직부장과 훈련부장을 하고 다니면서 빈둥빈둥 논다. 정래 모친은 가게를 하기로 작정한다. 그녀는 남편을 줄라 집문서를 은행에 넣고 삼십만 원을 은행에서 빌린다. 당장 급한 것을 정리하고 나니 이십만 원이 남는다. 그 돈으로 원래 선술집이던 것을 팔친 원 월세를 얻어 학용품 상점을 벌린다. 돈이 부족하자 동업의 조건으로 옥임의 돈을 쓴다. 가게는 조금 외진 골목 안이기는 하지만 여자 중학교와 국민학교가 길 건너로 마주붙은 네거리에 위치하여 그런대로 재미를 본다. 옥임은 가게에서 일을 하지도 않고 매달 이익금만 챙겨간다. 정래 부친은 구멍가게에서 송돈을 얻어다 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작년 겨울 아저씨로부터 땅땸기를 팔아서 택시를 부렸다. 그러나 가게에서 돈을 빼가기만 하자, 이를 본 옥임이 자기의 돈을 빼가겠다고 한다. 정래 모친은 시원하게 생각하지만 당장 돈을 빼줄 방법이 없어 난감해 한다. 옥임은 가게를 누구에게 소개하겠다고면서 자기 돈 십만 원을 빼갈 궁리만 한다. 옥임은 동업 조건으로 십만 원을 빌려주고 밀천의 두 배를 빼가고도 밀천과 이자를 받겠다고면서 팔만 원 보증금의 영수증을 담보로 받고 출자금을 일할 오부 변의 빚으로 돌린다. 정래 모친은 교장에게 오만 원을 빌려 가게에 만화책을 세운다. 그러나 땅땸기는 자동차 바람에 날려 보

내고 자동차는 수선비로 녹여 버리고 상점에서 흘러나간 칠팔만 환 돈은 고스란히 떼어 버려, 오만 환의 빚만 늘어났다. 정례 보친은 욕임이 미워, 네가 그 이자를 만나 내가 배거나 보자는 심산을 가진다. 욕임은 자기가 과하다고 뉘우친 것인지, 팔만 환 증서를 가져서 마음이 놓여서 그런지, 가게에 들르지도 않고 빚독촉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치 이십만 환을 채우기라도 하려고 했던 것인지 8개월이 지나자 욕임이 가게에 나타난다. 그리고 급히 이십만 환을 교장에게 빌렸다면 계산하기도 쉬우니 변리와 원금 이십만 환을 그에게 치르라고 한다. 정례 보친은 요사이 그 돈 이십만 환 때문에 고민이 많다. 학교가 파한 뒤 유리창을 통해 갑자기 조종해진 상점 앞 길을 내다보고 있던 정례는 교장 선생이 온다면서 눈살을 찌푸린다. 상점 안을 둘러보면 교장은 정례 보친에게 빚독촉을 한다. 한달 이자 칠천 오백 환을 주자 교장이 본전은커녕 이자까지 밀린다고 물뽕이다. 정례 보친은 돈벌어서 남의 좋은 일만 시킨다고 불평을 한다. 이번에는 본전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불멘소리를 하던 교장은 김옥임에게 이십만 환 조건을 대지르고 여기서 돈을 받아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정례 보친은 얼굴이 빨개가지고 눈을 새로 뜨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 일주일 후 황토현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던 정례 보친은 욕임으로부터 젊은 서방을 밟고 그러느냐는 폭언을 듣는다. 욕임이 넘은 아버지 같은 영감과 사는 그녀의 히스테리라고 창피하게 생각한 정례 보친은 욕임을 끌고 뒷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욕임은 우정이고 뭐고 돈이나 내라고 한다. 생전 처음 당하는 봉속에 눈앞이 아찔하여 정례 보친은 옆골목으로 줄달음을 친다. 욕임은 영감의 후실로 호강도 했지만 반민법이 통과되면 재산을 몰수당할 것이므로 살길을 찾아나선 것이다. 정례 보친이 혼쭐이 나서 도망치는 것을 보고 욕임은 가슴이 후련해진다. 젊은 남편과 자식을 둔 정례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되어 은연중에 화풀이를 한 것이다. 혼을 내주었다면서 포라도 만나다 달라는 욕임의 말을 들은 교장은 이튿날 정례 보친을 찾아와 빚독촉을 한다. 욕임의 성격 파산이 가엾다면서 울었다는 정례 보친은 이십만 환 포와 이만 환을 교장에게 준다. 그 후 두 달 걸쳐서 교장 영감의 오만 환은 갚았지만 석 달째 가서는 가게 주인이 교장으로 바뀐다. 교장은 이복에서 넘은 딸내외에게 알맞은 장사라고 욕임에게 얼마간의 돈을 얹어 주고 가게를 인수한 것이다. 정례 보친은 죽도록 벌어서 남 좋은 일만 시켰다고 절통해 하다가 울화가 터져 눕는다. 정례 보친은 자동차를 돌려 보고 싶어하는 욕임에게 맞는 어수룩한 자가 나타났다면 집문서는 욕임의 돈으로 도로 찾을 것이라고 껄껄 웃는다.

③ 『엄마의 말뚝』은 1980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연작소설로서 총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엄마의 말뚝』 1(『문학사상』, 1980)은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엄마가 어린 ‘나’와 오빠를 이끌고 고향인 개성 막적골을 떠나 서울 연두리인 서대문구 원저동에 고생 끝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까지를 그리고 있다.

19. 다음 밑줄 친 ㉠~㉣ 중 그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2015 알찬국어 기본서 2권 516쪽>

뽕락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 뽕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른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뽕락카노 뽕락카노

㉢ 씹어서 동아뽕줄은 삭아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을 말자

㉣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박목월, ‘이별가’-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2015 알찬국어 기본서 2권 516쪽>

★정답풀이 ㉠과 ㉡에서 ‘바람’은 소통을 방해하는 단절의 의미를 지녔지만 화자는 ‘하직을 말자’를 반복하며 이별을 강하게 거부한다. 따라서 ㉢의 ‘바람’은 화자와 시적 대상이 ‘강’을 사이에 두고 단절되어 있지만 갈밭을 건너는 바람, 즉 단절에도 구애 받지 않고 공기 중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처럼 우리의 인연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 곧 ㉢의 ‘바람’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인연’을 가리킴으로 나머지 셋과 의미가 가장 다르다.

<2015 알찬국어 기본서 2권 516쪽>

이별가

뭐라카노, 저편 ㉠ 갯기슭에서
니 뭐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른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뭐라카노 뭐라카노
㉢ 썩어서 동아뱃줄은 삭아 내리는데

㉣ 하직을 말자, 하직을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1연~4연] 피할 수 없는 운명적 별리
뭐라카노 뭐라카노 뭐라카노
니 흰 옷자라기만 펴려거리고.....

㉤ 오냐, 오냐, 오냐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5연~7연] 끊어질 수 없는 인연

뭐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오냐, 오냐
㉦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8연~9연] 순응과 초극

- 박목월, 《경상도의 가랑잎》(1968)

1. 주제 : 삶과 죽음을 초월한 인연과 그리움

2. 표현

- ① 방언 : 소박한 정감
- ② 반복과 점층 : 그리움과 안타까움 심화
- ③ 되풀이되는 질문(‘뭐라카노’) 속에 이별의 정한을 드러냄.
- ④ 어조 : 소박하고 친근한, 차분한 어조

3. 시어 및 시구 풀이

- ㉠ 강 : 이별의 공간, 삶과 죽음의 간격
- ㉡ 뱃줄 : 현세의 인연
‘삭아 내림’ : 이승의 이별, 시간과 인연의 소멸
- ㉢ 나도 곧 따라갈 터이니 이별인사를 하지 말자.
- ㉣ 재회의 약속
- ㉤ 바람 : 이승을 저승을 넘나드는 인연(문제 해설 참고)
- ㉥ 목소리의 의미 차이
‘뭐라카노’ : 운명적 상황의 비극적 인식에서 오는 ‘물음’
‘오냐’ : 운명적 순응에서 오는 초극의 ‘대답’

4. 이별에 대한 화자의 자세 : 순응, 초극

★오답풀이

- ① ㉠ ‘바람’은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존재이다.

- ② ㉠의 ‘바람’은 ㉡의 ‘바람’과 마찬가지로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소통을 방해한다.
 ③ ㉠의 ‘동아 밧줄’은 툇튼하게 톤 밧줄로 이는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현세의 인연을 의미 하지만 동아 밧줄이
 ‘삭아 내렸다’는 것은 곧 이승의 이별을 의미한다.

20. 다음 시조와 가장 유사한 정서가 나타난 것은?

<2015 알찬국어 기본서 2권 411쪽>, <2015 지방직 및 서울시 동형 모의고사 11회 15번>, <2015 지방직 및 서울시 동형 모의고사 10회 7번>,
 <2015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 6회 20번>

방안에 헛는 풋볼 놀과 이별 옛관
 꺾츠로 눈물 디고 속 타는 줄 모르는고
 더 풋볼 날과 같트여 속 타는 줄 모로도다

- ① 이화에 월백 고 은한이 삼경인 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라파
 다정도 병인 낭 여 못 드러 노라
 ② 손에 막 잡고 손에 가식 쥐고
 늙는 길 가식으로 막고 오 백발 막 로 칠엿 이
 백발이 제 문저 알고 지름길로 오건야
 ③ 이화우 훗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각 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노매
 ④ 사 돌아 올 일 자 략
 사 이 되어 나셔 올타웃 못 먼
 쇼 갓 곳갈 식워 밥머기나 다르랴

정답 ③

★정답풀이 이별한 입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는 작품은 ③번이다.

東風(동풍)이 건듯 부려 積雪(설)을 헤터내니,
 窓(창) 밝고 심근 梅花(화) 두세 가지 여세라.
 득 冷淡(담) 暗香(암향)은 므 일고.
 黃昏(황혼)의 이 조차 벼 마 밋최니,
 늦기 만기 님이신가 아니신가.
 며 梅花(화) 꺾거 내며 님 겨신 보내오져.
 님이 너 보고 엇머타 너기실고.

(중략)

扁鵲(편작)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 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하리 어디여 뵈나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족족 안니다가,

향르는 애로 님의 오 올브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 셔도 내 님 조 려 노라.

※ 화자의 태도가 윗글과 유사한 작품은? <2015 지방직 및 서울시 동형 모의고사 11회 15번>

- ① 梨花雨(이화우) 훗 릴 제 울며 잡고 離別(이별) 님,
秋風落葉(추풍 낙엽)에 저도 날 각 가.
千里(천 리)에 외로운 만 오락가락 노매.
- ② 梨花(이화)에 月白(월백) 고 銀漢(은한)이 三更(삼경)인 제,
一枝(일지) 春心(춘심)을 子規(자규)야 알나마 ,
多情(다정)도 명인 양 여 못 드러 노라.
- ③ 北窓(북창)이 다커늘 雨裝(우장)업시 길을 난이,
山(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비로다.
오늘은 비 맞았시니 얼어 잘 노라.
- ④ 청산리 벽계수(碧溪水)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一到滄海)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滿空山)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정답] ① 이별한 입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는 작품은 ①번이다.

다음 시와 같은 표현 기법이 쓰인 작품은? <2015 지방직 및 서울시 동형 모의고사 10회 7번>

房(방) 안에 췌는 燭(촉)불 놀과 離別(이별) 하엿관대,
것으로 눈물 디고 속타는줄 모로논고.
우리도 더 燭(촉)불 갖아야 속타는 줄 모르노라.

- ① 풍상이 섰거친 날에 각 뒤흔 황국화를
금분(金盤)에 가득 담아 옥당에 보내오니
도리야 곳인 재 마라 님의 뜻을 알니라
- ②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은 님 여희알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아이다
저 물도 내 안 갓도다 울어 밤길 네숫다
- ③ 마음이 어린 후니 하난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에 어내 님 오리마난,
지난 님 부난 바람에 행여 권가 하노라
- ④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만은
시절이 하 수상하니 울동말동 하여라.

정답 ②

<보기>는 이개의 시조. 촛불에 감정이입하여 정서를 표현. 수양대군(훗날의 세조)의 왕위 찬탈과 어린 임금 단종(端宗)이 영월로 유배되자, 임금과의 이별을 촛불에 감정이입하여 표현하였다.

②는 단종이 영월에 유배될 때 임금을 수행하였던 금부도사 왕방현의 작품이다. 님(단종)을 여인 슬픔을 강물에 감정이입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오답풀이

① 이조년의 시조<다정가>이다. 배꽃이 하얗게 핀 곳에 '달' 이 비치는 봄밤에 화자는 밀려 오는 애상감에 잠들지 못한다.

<2015 입천국어 기본서 2권 763쪽>

梨花(이화)에 月白(월백) 고 銀漢(은한)이 三更(삼경)인 제

一枝(일지) 春心(춘심)을 子規(자규)야 알나마
多情(다정)도 병인 양 여/ 못 드러 노라.

- 이조년, <다정가> (고려 말)

② ‘우탁’의 시조로 늙는 것을 막고 싶지만 늙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음을 한탄하는 내용이다.

<2015 지방직 및 서울시 동형 모의고사 1회 15번>

③ 손에 막 잡고 손에 가 쥐고,
늙 길 가 로 막고, 오 白髮(백발) 막 로 치려터니,
백발이 제 몬져 알고 즈름길로 오더라. - 우탁

④ 정철의 <훈민가> 16수 중 8수로 늙은 일을 권장하는 내용이다.